

[사회]

법학적성시험 응시생 줄고 서울지역 유출 긴장

전남대 “로스쿨 인재 잡아라”

5일 서울서 입학 설명회 등 총력전

‘수도권 수험생을 확보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이 가장 걱정되면서 전남대에 떨어진 특명이다.

최근 끝난 로스쿨 입시시험 법학적성시험(LEET)의 광주·전남 지역 응시인원 1 당초 275명에서 251명으로 더 준 데다 서울지역 로스쿨에 원서를 내겠다고 말한 수험생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대가 긴장하고 있는 것.

광주에서 시험을 본 이틀만 꼭 전남대에 지원하라는 법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이 지역 수험생들이 전남대에 많이 지원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대 일부에서는 로스쿨 1단계

합격자 인원인 정원(120명)의 3배수(360명)를 못 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대는 오는 5일 서울 한국경제신문 건물 18층에서 서울지역 로스쿨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남대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법학적성시험의 서울지역 응시인원은 8천여 명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결국 서울지역 수험생들이 얼마나 전남대에 지원하느냐가 우수학생 유치에 결정적 키워드인 셈이다.

이미 일부 로스쿨 유치 대학들은 각 지역의 법학적성시험 고사장에 팸플릿을 배치해 수험생들에

게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대 노안영 입학관리본부장은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률이 4.88대 1인데 적어도 평균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입학설명회 뿐 아니라 서울지역 학원가에 직접 찾아가는 등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립대여서 등록금(연간 1천만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우수학생 유치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남대 법대 한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예에서 보듯 서울지역 학생들이 대거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교통사고 환자 입원률 8.6배

11%는 ‘나이통 환자’ 가능성

국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률이 일본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63.7%로 일본의 2006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기준 입원률 7.4%에 비해 8.6배나 높았다. 이는 서류상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통 환자’ 등 불합리한 요인 때문으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금융원은 우려했다.

실제 금융원이 지난 6월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60개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비율은 11.4%로 10명 중 1명은 보험금을 타낼 의도를 지닌 가짜환자일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역사회 건강조사

광주시, 5개 보건소별

광주시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조선대 의대와 협약에 따라 광주시내 5개 보건소별로 1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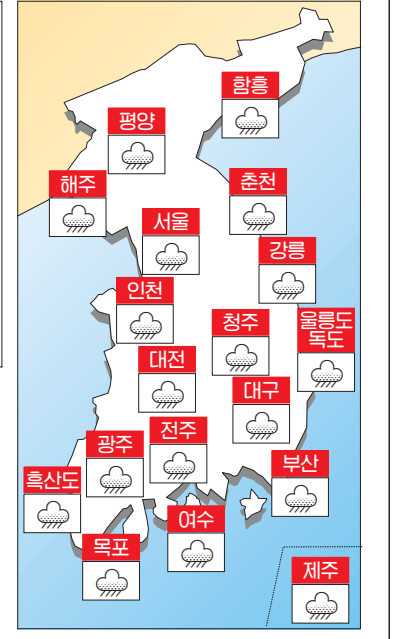
이상 주민 800여명씩 모두 2천500가구, 4천64명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주민의 건강 및 유병(有病)상태, 삶의 질, 의료이용, 건강생활습관, 안전의식 등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3월경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가을 부르는 비 9월 1일 (음 8월 2일) ◇전국날씨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지역), 날씨 (날씨), 기온 (기온). Rows include 서울, 부산, 광주, etc.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3:04, 여수 밀물 < 09:54

Table with 7 columns: 날짜 (날짜), 날씨 (날씨), 최저/최고 (최저/최고). Rows for 2(화) to 7(일).

전문대 내년부터 수시 1학기 모집 폐지

2010학년도 입학전형 발표

2010학년도 전문대학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전형이 폐지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자대학장)는 전국 147개 전문대학이 협의하고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충엽 동의과학대학장)가 심의, 의결한 2010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모집시키는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되며 수시에서는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 1학기 전형이 폐지된다. 전형기간은 수시모집이 내

년 9월9일부터 12월8일까지, 정시모집이 내년 12월18일부터 2010년 2월18일까지, 추가모집이 2010년 2월19일부터 26일까지이다.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성적,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용고사, 적성·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등이며 학생부 반영비율, 방법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원, 발표, 등록 방법은 2009학년도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은 오는 11월 발표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대학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수능 원서 접수

오늘부터 ~ 11월 13일 시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목) 실시되는 200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원서를 1일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및 교육청, 고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다.

수능 시험 성적은 12월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사직제’ 11년만에 재개

국가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의식인 광주 사직제(社稷祭)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사직공원 내 사직제단에서 열렸다. ‘광주 사직제 재복원추진위원회’(회장 김계운) 주관으로 열린 이날 사직제는 지난 1997년 이후 중단된 이후 11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사직제(社稷祭)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시 사직공원 내 사직제단에서 열렸다. ‘광주 사직제 재복원추진위원회’(회장 김계운) 주관으로 열린 이날 사직제는 지난 1997년 이후 중단된 이후 11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9월 늦더위 기승 낮 기온 30도 육박

9월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한동안 늦더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월의 시작인 1일에는 비로 인해 날씨가 선선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날인 2일부터 다시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광주·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오는 등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30mm.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로 예상됐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ju In-service Education' (광주내영교육학) featuring a 'Teacher Employment Fair' (교원임용 공개 설명회).

Advertisement for 'Spice Leadership Course' (스피치 리더십 과정) and 'Business Leader Course' (경영 지도자 과정) by ACE Academy.

Advertisement for 'In-service Education' (인문지도사격 연수생모집) for 2008.

Advertisement for 'In-service Education' (인문지도사격 연수생모집) for 2008, including details about the course and application.